

제주 안방 전국체전 ‘메달 130개’ 정조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10월 16~22일 제주 개최
수영·유도 등 효자종목 외 레슬링 등서 메달 기대
“백중세 종목들 선전하면 목표 이상 메달도 가능”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네 번째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선수단은 메달 13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내세웠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전력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안방체전’이라는 이점을 활용, 막바지 경기력 극대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대회 메달 목표는 지난 2014년 제주에서 열렸던 제95회 전국체전 175개보다는 40개 정도가 적은 것이다.

▶효자종목 선전 여부 목표 달성 관건=제주선수단의 전통적인 메달

발인 수영과 유도 등의 선전 여부가 메달 130개 획득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영의 경우 지난해 부산 대회에서 경영 10개, 다이빙 13개 등 23개를 따내며 효자종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올해도 18세 이하부 다이빙 강지호와 이예주, 부혜주(이상 남녕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경영에서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주호(서귀포시청) 등이 다관왕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1개 메달을 따낸 유도에서는 고등부에서 7개, 대학부에서 5개, 일반부에서 이경하(제주특별자치도청) 등이 4개를

따내며 모두 17개 이상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메달 박스’=수영과 유도 이외 종목 중 다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은 양궁과 역도, 레슬링, 태권도, 육상 등이다. 양궁의 경우 연고팀인 현대제철과 현대백화점이 8개 이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역도는 지난해 부산대회에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김태희(남녕고)가 메달 색깔을 바꾸며 다관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주도청 소속 신록과 손영희도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레슬링은 제주도청 송현식 등이 남자일반부에서 4개, 태권도는 4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복싱 3개, 씨름과 우수 3개, 육상 5개, 사이클 3개, 사격에선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예진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천군만마 ‘상무선수단’=올해 전국체전에서는 국군체육부대가 제주선수단에 합류한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제주 취약 종목인 농구와 럭비, 배구, 배드민턴, 하키 등에서 메달 레이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자치도선수단은 다음 달 7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갖고 ‘메달 목표 130개 달성’을 결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체육회 신진성 회장은 “전체 43개 종목 665명이 참가하는 제주선수단은 색깔 구분 없이 100개 내외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중세 종목이 선전하면 130개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제주선수단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SK FC 이탈로 K리그1 30R ‘MVP’

강원 원정경기 결승골

제주SK FC 이탈로가 A매치 휴식을 앞두고 지난 주말 치러진 프로축구 K리그1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이탈로가 하나은행 K리그1 2026 30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이탈로는 지난 20일 강릉하이라인 아레나에서 열린 강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36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하고 제주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30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9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울산 HD의 경기다.

안양이 전반 27분 마테우스의 중거리 슈트로 선제골을 뽑았고, 울산이 후반 9분 이동경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췄다. 그러자 후반 16분



K리그1 30라운드 MVP에 선정된 제주SK FC 이탈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안양 엘쿠라노가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팀에 2-1 승리를 안겼다.

20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선두 FC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한 포항스틸러스는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2026시즌 ‘끝’

부상으로 조기 종료… 타율 0.276 기록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전 외야수 이정후의 2026시즌이 종료됐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22일(한국시간) 이정후를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린다고 밝혔다.

64승 92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처져있는 샌프란시스코는 포스트시즌 진출이 무산됐고, 정규시즌 6경기가 남아있다.

이정후는 열흘 뒤 복귀하더라도 일정상 올 시즌 잔여 경기에 뛰기 어렵다.

이정후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방문 경기 중 자신의 타구에 사타구니를 맞고 교체됐으며, 경기 후 검진에서 휴식이 필요한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올 시즌 14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6, 10홈런, 57타점, 65득점, 12도루, 출루율 0.320, 장타율 0.404를 기록했다.

시즌 중반 리그 타격 순위 최상위권에서 경쟁할 정도로 좋은 기록



시즌을 조기 종료한 이정후. 연합뉴스

을 썼지만, 시즌 후반 기세가 꺾여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냈다.

타율과 홈런, 타점, 도루는 2024 시즌 MLB에 진출한 뒤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타율은 내셔널리그 17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출루율과 장타율, 두 기록을 합한 OPS(0.724)는 지난 시즌 0.735보다 떨어졌다.

연합뉴스

한국 육상 8년 만에 AG 금메달 도전

오늘부터 레이스… 우상혁·남 400m 계주 기대

국제종합대회의 꽃인 육상이 23일부터 시작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육상은 23일 경보를 시작으로 29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대회 육상에는 수영(55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으며, 한국 선수단은 8년 만의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한국은 최근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에 그쳤다.

2014년 인천 대회에서 은 4개, 동 6개를 획득했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동 3개,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은 1개, 동 2개를 목에 걸었다.

최근 12년 동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는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여자 100m 허들 정혜림이 유일하다.

이번 대회엔 총 42명의 한국 육

상 선수가 출전하며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이다.

그는 인천 대회(10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은메달), 항저우 대회(은메달)에 이어 4번째 아시안 게임 무대를 밟는다. 예선은 24일, 결선은 27일 펼쳐진다.

이번 대회엔 2020 도쿄 올림픽 챔피언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을 비롯해 인도의 사르베시 야닐 쿠사레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한국 육상은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와 나마디 조엘진, 이재성, 서민준, 김시은이 출전하는 남자 400m 계주에서도 메달을 기대한다.

대표팀은 비웨사와 나마디 조엘진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두선수는 최근 남자 100m에서 10초13의 한국 역대 2위 타이 기록을 나란히 세우는 등 물오른 기량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 몰랐지” 22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펜싱 플뢰레 남자 개인전 16강에서 한국 윤정현이 대한의 전이동을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양 확보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 쉼니다 | http://www.cheilsa.co.kr

시정 ↑

고용복지센터 (구.상록회관)

← 삼성혈 칼호텔 →

1중앙로

제일사

NAVER 제일사 검색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CIC M-ITC ITC ITE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소리샘 보청기 TEL. 753-5347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광양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한국병원 소리샘 보청기